

환원 없는 조율: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의적 문법, 그리고 개혁파 구원론에서 설명적 의존의 한계

문정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SIEW) 조직신학

ABSTRACT

The difficulty of relating jus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in Reformed soteriology arises from a structural lacuna: the absence of a formal account of what kind of relation obtains between these doctrines when neither is derivable from the other. The present article offers that account, distinguishing explanatory from articulatory relations, and arguing that Gaffin, Fesko, and Horton share a common structural limitation: each imposes explanatory dependence across registers whose grammar does not permit it. In place of these models, the article argues for nonreductive doctrinal coordination governed by articulatory mutual necessity — grounded independently in the tradition's own theological commitments, the Pauline textual pattern, and the differentiated unity of the resurrection as eschatological *Ureignis*.

Keywords: Justification, Union with Christ, Doctrinal Grammar, Explanatory·Articulatory Relations, Articulatory Mutual Necessity, Geerhardus Vos

I. 들어가는 말: 문제 제기와 논의 전개 방향

개혁파 구원론(Reformed Soteriology) 안에서 칭의(Justification)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의 관계만큼이나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문제도 또 없을 것이다. 두 교의 모두, 전통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또 상당한 주석적인 근거를 가지며, 더 나아가 구원에 관한 교회의 설명에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것(Indispensable Element)으로서 널리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관한 개념적 조율의 문제(Problem of Conceptual Coordination)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해 다양하게 분기하는 각 입장들 사이에 한 가지 공유된 가정(One shared assumption)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합성(Coherence)은 다른 아닌 설명적 의존 관계(Explanatory Dependency), 곧 한 교의가 다른 교의를 근거 지어(Grounding) 설명하거나 혹은 환원적 관계(Reductive Relation)를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세 가지 유형의 지배적인 설명 모델(Three Dominant Types of Explanatory Models)을 낳게 된다. 첫 번째 설명 모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일종의 우선성(Priority)을 부여하여, 칭의를 참여적 연합의 파생물(Outgrowth of a Participatory Union)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 모델은, 첫 번째 설명 모델이 취하고 있는 방향을 정반대로 전환하여, 오히려 칭의에 우선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설명 모델은, 공통의 설명적 근거로서 제출된 언약적인 구조(Covenantal Structure) 안에서, 두 교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통합(Comprehensively Integrate)하여 제시하는 것이다.¹⁾

그런데 논자는 위의 세 설명 모델들에 내포된 설명적 의존 관계라고 하는 공유된 가정이,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처럼 특수한 형태의 상호적 교의 문법(Grammar of Reciprocal Doctrine)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분절적인 지평(Articulatory Horizon)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칭의 및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분절적인 관계가 아닌 설명적 의존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그 어떠한 형태로든 교의적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성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교의 관계에 대해 어떤 적합한 설명 모델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와 달리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1) 본 연구는 킷 파인(Kit Fine, 1946-)과 조나단 셰퍼(Jonathan Schaffer, 1970-)의 근거론적 틀(Grounding Framework)을 구성적(Constructive)으로가 아니라 진단적(Diagnostic)으로 활용한다. 이는 특정 형이상학적 내용을 승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모델들에 작동하는 구조적 전제들(Structural Presuppositions)을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Cf. K. Fine, "Guide to Ground", in *Metaphysical Grounding*, ed. F. Correia and B. Schnie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37-80; J. Schaffer, "On What Grounds What", in *Metametaphysics*, ed. D. Chalmers, D. Manley, and R. Wasserman (Oxford: Clarendon Press, 2009), 347-383.

연합의 관계성이 설명적인 의존 관계를 통해서만 해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착된 방법론적 틀(Entrenched Methodological Framework) 자체에 대한 적실한 반성적 고찰(Pertinent Reflective Consideration)이 요청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테제이다.

이후 논증은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상호 간 각각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교의적 문법 개념뿐만 아니라 설명적·분절적(Explanatory·Articulatory) 구분의 개념을 통해 규명되며, 이를 통해 ‘분절적 상호 필연성’(Articulatory Mutual Necessity)의 주장이 도출된다. 그런 다음 바울 서신서 주석을 통해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개념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 신중하게 입증되고 설명된다. 그 후에 리처드 개핀(Richard B. Gaffin Jr., 1936-), 존 페스코(John V. Fesko, 1970-), 마이클 호튼(Michael S. Horton, 1964-)의 세 모델이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검토된다. 그런 다음 구성적인 제안(Constructive Proposal)으로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개념이, 게하르두스 보스(Geerhardus Vos, 1862-1949)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를 통해 확인된 선례들에 따라, 대안적 모델(Alternative Model)로서 제출됨으로써, 설교와 목회 영역에서 그것의 적실한 적용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²⁾

II. 개념적 토대: 교의적 문법에서 설명적 관계와 분절적 관계, 그리고 분절적 상호 필연성

1. “교의적 문법”이란?

논문의 중심적 내용이 도출되기 전에 ‘교의적 문법’(Doctrinal Grammar)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엄밀한 개념적 제한 규정(Conceptual Limitation)이 필요하다.³⁾ 여기서 사용된 ‘교의적 문법’은 교의적 발화가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의도된 신학적 효과, 가령 선언이나 약속 혹은 기술적

2) 본론에서 각기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세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환원적인 교의적 조율’(Non-Reductive Doctrinal Coordination)은 제안되는 모델들의 유형적 구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설명적’과 ‘분절적’의 구분은 진단 도구를 가리킨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두 교의가 어느 쪽도 다른 쪽으로부터 환원적으로 도출되지 않지만, 서로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긍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존재론적(Ontological)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본 논문에서 사용된 교의적 문법 개념은 린드벡의 『교리의 본성』(*The Nature of Doctrine*, 1984)에서 논술된 문화-언어적 설명과 유사성은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다(George A. Lindbeck, *The Nature of Doctrin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79-124). 상기 언급된 것처럼 린드벡의 문법은 공동체의 삶의 형식 내에서 종교 언어의 사용을 규율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법은 더 좁고 더 형식적이어서, 특정 교의적 발화가 의도된 신학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발화수반적(Illocutionary) 및 통합적(Incorporative) 조건들이다. 본고에서 활용되는 형식적인 틀은, 존 랭쇼 오스틴(John Langshaw Austin, 1911-1960)과 존 로저스 설(John Rogers Searle, 1932-), 그리고 케빈 존 반후저(Kevin John Vanhoozer, 1957-)의 제반 이론을 참조하여 새롭게 제출한 사유의 형식적인 틀이다. Cf.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94-108; J. R. Searle,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54-71; K. J.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201-280.

효력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발화 수반적 및 통합적 조건들의 집합적 총체를 가리킨다. 이것은 조지 린드벡(George A. Lindbeck, 1923-2018)의 문화-언어적 의미의 문법(Grammar in a Cultural-Linguistic Sense), 즉 공동체의 규율적-종교적 말하기 체계(Regulative-Religious Discourse of a Community)보다 훨씬 더 좁고도 형식적인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교의적 문법’은 사실상 언어행위 분석(Speech Act Analysis)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핵심 물음은 “삶의 형식 안에서 어떤 발화들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의적 행위, 예를 들어 법정적 선언이나 참여적 통합이 왜곡 없이 의도된 발화 수반적 성격(Illocutionary Nature)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하는가?”이다. ‘교의적 문법’을 따라 본 논문이 상고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칭의의 문법’(Grammar of Justification)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가 어떤 특정 종류의 선언으로 성취되는, 곧 특정 성격의 수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의 복합체를 의미한다. 둘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법’(Grammar of Union with Christ)은 그리스도 안으로의 통합을 묘사하는 행위가 그러한 특정 통합의 묘사로, 정확히는 코람데오(coram Deo)의 특수성을 온전히 갖춘 채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건들의 복합체를 뜻한다.

2. “설명적”과 “분절적”의 개념 구분

‘설명적 관계’(Explanatory Relations)는 하나의 교의적 주장이 다른 것의 파생적 근거(Derivative Ground)나 원인(Cause) 혹은 조건(Condition)을 명시하는 어떤 관계이다. 체계적 신학으로서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은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칭의를 수여받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법정적 판결은 참여적 교제가 그 위에 놓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전제조건(a sine qua non)으로서 작용한다와 같은 유형의 신학적 논증을 주요한 논증으로서 구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절적 관계’(Articulatory Relations)는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어떤 교의도 혼자서는 충실하게 진술될 수 없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가 다른 것에 논리적으로 앞서기 때문이 아니라, 칭의든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든, 그 각각이 자신의 문법에 따라 적절하게 명시된 신학적 의미를 견지하고자 할 때, 생겨난다. 요컨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각자 상대 편에 대해 불가환원적인 담론적 맥락(Irreducible Discursive Context)을 제공할 때, 이러한 두 교의적 관계는 분절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국 ‘분절적 관계’는 비왜곡적인 신학적 말하기의 충분 조건들(Sufficient Conditions for Non-distortive Theological Speech)에 관한 것이지, 일종의 근거나 혹은 파생적 관계(A Sort

of Grounding or Derivative Relationship)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구분은 여러 종류의 관계가 교의적 정합성(Dogmatic Coherence)에 있어 서로 다른 조건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비중적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부연하면 설명적 관계는 우선성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나, 반대로 분절적 관계는 그것을 금지한다.⁴⁾ 여기서 설명적 관계는 상호적 관계 성격을 미묘하게 왜곡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문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의적 형식들(Dogmatic Forms)에 대해 강압적(Coercive)으로 파생성(Derivativeness)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가 분절적으로 작용하는 관계 지점에 대해 설명적 비대칭성(Explanatory Asymmetry)을 지정해 줌으로써, 환원적 설명 체계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저항하는 것은, 논증의 전체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설명력이 낮은 열등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당한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3. “분절적 상호 필연성”: 긍정적 설명과 그 독립적 근거

칭의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사이의 특수한 분절적 관계는 필자가 ‘분절적 상호 필연성’(Articulatory Mutual Necessity)이라 명명한 것이다. 상설하면 이 관계는 철학적인 원리로부터 연역적(Deductive)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대신 이 관계는 개혁파 전통이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그 구체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⁵⁾ 비근한 예로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칭의와 성화(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가, 비록 항상 구별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둘은 모두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또한 그로부터 받은 은혜의 유익들인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수여되는 것은 추상적인 유익들(Abstract Benefits)이 아닌 구체적인 그리스도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두 유익들인 칭의와 성화가 실제적으로 구별(realiter distincta)될 수 있지만, 결코 실제적으로 분리(realiter separata)될 수는 없음을 명시적으로 천명한다. “무엇인가?”하는 물음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는 개념적 차이에 따른 구별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누구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있어서는 전혀 분리불가능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WCF)은 두 유익 모두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안에서 동시에, 즉 적용의 경륜 안에서 어느 쪽도 다른 쪽으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한 번에 같은 것을 수여받는다고 진술한다.

4) Cf.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94–108; Searle, *Speech Acts*, 54–71.

5) 여기서 개혁파 전통 자체의 정식화들을 통해 논증을 시작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의미는,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 외부로부터 수입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칼빈, 튜레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미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명시화한다. Cf. Calvin, *Institutes*, 3.11.2; *Institutes of Elencitic Theology*, trans. G. M. Giger, ed. J. T. Dennison Jr., 3 vols. (Phillipsburg: P&R, 1992–1997), 16.1.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칭의와 성화 모두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안에서’ 동시에 수여받는다고 진술한다(XLi–ii, XIII.i). 개혁파 전통에서 인출된 세 가지 자료 모두에서 확인되는 분리 불가능성은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 명시화하고자 하는 긍정적 조건들에 관해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식화(Formulation)는 단순히 규율적 관례들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익들의 구조가 구원자 그 자신과 상응(Correspondence)한다는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을 반영하는데, 말하자면 수여받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의요, 동시에 믿는 자의 생명인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유익에만 우선성을 부여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설명적으로 앞선 것으로 설정하는 그 어떠한 형태의 설명 체계든지, 칭의와 연합의 교의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두 유익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Christ as the Source of Two Benefits)까지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칭의와 연합의 교의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으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통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한 선례를 넘어선 논증 그 자체이다. 재언하면 전통은, 자신이 속한 신학적 진영의 확고한 근거에 기초하여, 어느 한 쪽을 다른 쪽의 파생물로 취급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유익들이 주어지는 근원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교의적 문법은 이러한 전통적 주장을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합과 분리된 채로 진술되는 칭의를 고려해 보자. 먼저 법정적 용어(Forensic Term)는 선언적 행위(Declarative Act)를 수반하는데, 곧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를 근거로 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런데 어떤 선언이든 선언은 수신자에게로 전달되나, 칭의의 경우 수신자는 이 선언이 의미하는 내용 안에 앞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수신자가 그리스도와 의 생동하는 교제 밖에 서 있다면, 그래서 판결이 자신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그분과 그 어떠한 형태의 참여적 관계(Participatory Relationship)에도 서 있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해 내려진다면, 이러한 선언은 이미 적절한 수신자를 잃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남게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빈껍데기만 남은 법적 허구(Legal Fiction)로서의 빈곤한 칭의의 상태(Thin Conception of Justification)만이 아닌, 칭의의 선언이 더 이상 문법적으로 참되게 기능하지 않는 어떤 기능적 오류 상태(Functional Malfunction)이다.

이와 대별하여 이제 칭의 없이 진술된 참여적 용어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그것의 교의적 문법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안으로의 연합은, 생명이시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의 참여를 묘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칭의된 죄인이다. 그런데 만약 참여에 관한 묘사가 믿는 자의 코람데오(coram Deo)의 위치를 확립하는 법정적 판결(Forensic Verdict)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면, 연합은 그것의 확정적인 법적 성격(Legal Nature)을 잃어 버리고서 미분화된 존재론적 지평(Undifferentiated Ontological Dimension)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비성경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곧 자신에게 연합한 자들을 위해 사법적 판결(Judicial Decision)을 감당하신 분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이란 성경적으로 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적이지도 않은 분별이다. 그래서 칭의든 연합이든 양방향 모두에서,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를 환원적(Reductive)으로 사유하는 것은 단지 불완전함만이 아닌 교의 문법적 실패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교의가 교의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발화 수반의 기능적 행위 (Illocutionary Act)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개혁파 전통에서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 불가능하다는 신학적 이해 속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전제되어오던 것을 문법적 형식화(Grammatical Formalization)과 개념적 유형화(Conceptual Categorization)를 통해 보다 더 엄밀한 이해의 틀(Conceptual Framework)로서 제시된 것이라 하겠다.

4. 형식적 논증과 그 논리적 위치

위에서 논구한 것처럼 ‘칭의의 문법’(Grammar of Justification)은 적절한 수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포함한다. 즉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는 선언적 행위(Declarative Act)는 선언이 내포하는 수신자를 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의 생동하는 교제 밖에서 내려진 판결은 그것의 정당한 수신자를 잃은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유형의 선언이 선언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그치도록 만든다. 이와 반대로 ‘연합의 문법’(Grammar of Union)은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된 자의 확정적인 법적 지위(Legal Status)를 포함한다.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그러한 위치를 확립하는 법정적 판결로부터 단절되면, 참여적 기술은 코람데오의 정밀성을 잃고 미분화(Undifferentiation)된다. 따라서 칭의와 연합의 분절된 두 교의는 상대의 담론적 지평(Other’s Discursive Horizon)을 자신의 온전한 문법적 기능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요청하게 된다. 그러한 조건은 칭의나 연합의 내용 그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보충물(Supplement)로서 작용하지 않고, 교의적 문법의 기능이 참되게 작동하도록 하는 상호 간 공동적 기능 요건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은 설명적 파생물(Explanatory Derivative)로 생각될 수 없다. 말하자면 칭의와 연합의 교의는 한 쪽으로부터 다른 쪽이 생성되거나 혹은 상대의 내용을 근거짓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러한 관계성은 상호적인 규범적 제약(Reciprocal Normative Constraint)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를 설명하면 칭의와 연합에 있어 각 교의는 다른 것의 설명적 원천(Explanatory Source)이 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에 대한 왜곡적 표현(Distorted Expression)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Essential Conditions)로서 설정된다. 개혁파 전통에서 지속적으로 분별되어온 분리불가능성의 개념과 그것에 대한 이러한 문법적 분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로 동일한 결론으로 수렴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클리드 기하학(Euclidean Geometry)에서, 평행선 공준(Parallel Postulate)은 다른 공리들로부터 도출될 수 없지만, 그것의 존립 없이는 공리 체계(Axiomatic System) 전체가 불완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한 공리가 다른 공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도출 불가능성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전체 체계 구성에 있어 필수불가결(Indispensable)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칭의와 연합의 관계에서, 칭의를

통해 연합이 도출될 수 없고, 역으로 연합을 통해 칭의가 도출될 수는 없지만, 이 둘은 서로를 함께 상호적으로 규정하는 관계를 통해 체계 전체의 온전함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⁶⁾ 이에 따라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개념은 다른 모든 가용한 관계 형식들로부터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이 특수한 관계적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설명적 파생(A가 B를 근거 짓는다), 공통 근거로부터의 대칭적 파생(C가 A와 B 모두를 근거 짓는다), 논리적 동치($A = B$), 그리고 단순한 양립가능성(A와 B는 각각 무관계적이다)과는 구별된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칭의와 연합의 두 개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존하면서도 확정적인 긍정적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또한 단순한 상호 의존(Mutual Dependence)과도 구별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상호 의존은 서로 인과적(Causal)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두 존재자 사이에 성립하므로, 교의적 문법이나 표현적 충분성의 함의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특별히 칭의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교의들의 발화 수반적(Illocutionary)이고도 통합적인 문법적 차원(Syntagmatic Grammatical Dimension)을 개념적으로 충분히 표기하여 담아낼 수 있는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분절적 상호 필연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기존의 개념과 무엇이 동일하고 또한 무엇이 새롭게 주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명료화 작업(Process of Clarification)이 요구된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명명하는 실재 그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칼빈의 이중 은혜(duplex gratia), 보스의 구속사적 틀, 튜레틴의 실제적 구별(rea-liter distincta),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은혜의 두 유익의 동시적 수납은 본 논문이 명명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관계성의 형식을 따라 엄밀하게 분류 파악하지는 않았다. 형식적인 규정적 정의(Formal Stipulative Definition)의 부재는 종국적으로는 구조적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쌓으로 성립하는 교의 체계에서 어느 교의도 다른 쪽 교의와 설명적 의존 관계로 생각될 수 없을 때, 그것은 어떤 종류의 관계인가 대한 물음에 ‘분절적 상호 필연성’과 같이 형식화된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설명적인 의존의 도식(Schema of Explanatory Dependence)이 그러한 관계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작동하게 된다. 이 때문에 칭의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주장하는 갖가지 이론들 사이의 논쟁은 종식되지 않고 끊임 없이 이어지게 된다.

6) G. Vos, *The Pauline Eschat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30; repr. Phillipsburg: P&R, 1994), 11–41, 136–149. Ereignis(근원사건)라는 용어는 부활을 전체 구원 경륜이 근거하는 단일한 종말론적 사건으로 지시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핵심적 요점은, 근원사건의 비분할적 성격—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정하게 구별되는 구원론적 차원들—이 그 자체로는 그 차원들 사이의 어떤 우선성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충실한 신학적 표현이 두 차원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며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설명적 파생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III. 바울 주석과 본문적 제약

1. 개혁파의 법정적 용어와 칼빈의 이중 은혜

고전적 개혁파 신학에서 칭의는 불가환원적으로 법정적(Irreducibly Juridical)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⁷⁾ 이중 은혜에 대한 칼빈의 설명은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동시에 수여받는 구별되지만 분리불가능한 유익들(Distinct but Inseparable Benefits)로서 제시한다.⁸⁾ 두 유익 모두 연합 안에서 함께 수여받는 수용의 동시성(Simultaneity of Reception)은 구조적으로 설명적인 순서 부여(Explanatory Prioritization)에 저항하게 된다. 왜냐하면 만일 둘 모두 동시에 수여받는 것이라면, 어느 쪽도 다른 쪽을 통해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2. 본문 논증의 범위와 한계

본문들 자체에 대한 분석적 이해로 전환하기 전에, 주석적 논증이 확립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본론의 이 장에서 제시된 논증들은 부정적 제약들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바울 본문들은 법정적 용어와 참여적 용어 사이의 그 어떠한 설명적 위계를 전시하거나, 혹은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제약은 그 자체로 바울의 각 본문들이 설명적 위계(Explanatory Hierarchy)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을 논증적으로 확립하지는 않는다. 환언하면 공동적 지시(Co-reference)와 조율된 근접(Coordinated Proximity)의 성격은 원칙상 본문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기저에 대한 설명적 관계의 이론과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바울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부정적 제약(Negative Constraint)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중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바울이 기록한 본문에 설명적 위계를 부과하는 모델들은 그 자체로 제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문 그 자체를 통해 자신의 모델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실례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의미는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바울의 본문은 일종의 비설명적인 관계 형식(Non-Explanatory form of Relationship), 곧 필자가 제시한 파생 없는 조율된 공존(Coordinated Coexistence without Derivation)으로서의 ‘분절적 상호 필연성’을 완전무결하게 증빙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대단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 본문들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본문은 설명적 의존 관계보다 한층 더 정확한 방식으로 그것의

7) J.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 T. McNeill, trans. F. L. Battles, 2 vol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60), 3.11.2 (726–727); M. A. Garcia, *Life in Christ*, 112–130.

8) Turretin, *Institutes*, 16.1.1–16 (2:633–645);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 XI.i–ii.

긍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다름아닌 부활의 존재론적 구조 그 자체(Ontological Structure of the Resurrection Itself)이다. 정리하면 칭의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환원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여, 파생 없는 비환원적 조율 관계(Non-reducible, Coordinated Relationship without Derivation)로서 제시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모두 세 가지 맥락에서 확고하게 정초될 수 있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파 전통과의 깊은 연속성(Continuity)을 유지하면서 이를 한층 더 엄밀하게 개념 규정할 수 있는 형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설명적 의존 관계보다 성경 본문에 더 적실하게 상합하는 해석학적 방식(Hermeneutical Approach)으로 칭의와 연합의 관계를 해명해 낼 수 있으며, 셋째는 설명적 의존 관계에서도 끊임 없이 요구되었던 칭의와 연합의 긍정적 관계성이 부활의 존재론적 구조(Ontological Structure of the Resurrection)를 통해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⁹⁾

3. 로마서 4-6장: “생성”이 아닌 “조율”

로마서 4-6장은 칭의와 연합과 관련하여 가장 지속적인 주석적 사례를 제공해 준다. 4-5장에서, 바울은 행위와 무관하게 의가 계산되는 하나님의 행위(롬 4장 3, 5, 6, 8, 9, 11, 22-24절)를 뜻하는 “로기조마이”(logizomai)를 중심으로 법정적인 설명을 뚜렷하게 전개한다.¹⁰⁾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이르러서는 그 양식이 전환된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롬 6장 3-5절).¹¹⁾ 이 전환은 앞선 법정적 설명(Forensic Explanation)을 위한 설명적 근거로 도입되지 않으며, 또한 법정적 논증은 소급하여 참여적 용어들로 재해석(Reinterpretation in Participatory Terms)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여지는 바울의 논증 그 자체의 성격은 “생성적”(Generative)인 것이 아닌 “조율적”(Coordinative)인 것이다. 칭의와 참여는 교의적 생성의 연관 관계의 사슬을 따라 배열되어 있지 않고, 상호 함축적으로 조율된 일종의 관계로서 제시된다. 실제적으로도 칭의와 연합을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하는 종속적인 문법적 표지(Subordinate Grammatical Marker)가 존재하지 않는다. 칭의와 연합 그 각각이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충분히 허용된다. 본문이 모델들이 부과하는 파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부정적 관찰이

9) 방법론적 요점이 중요하다. §III에서 확립된 부정적 제약-바울 본문들이 설명적 위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은 그것들이 그것을 배제한다는 더 강한 주장과 다르다. 본 논문은 더 강한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부정적 제약이 확립하는 것은, 설명적 위계를 부과하는 모든 모델이 아직 이행하지 못한 본문적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적어도 하나의 비설명적 관계 형식-조율된 공존(Coordinated Co-presence)-이 본문적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확립한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에 대한 긍정적 사례는 어떤 단일한 증거 계열이 아니라 §II(교의적 문법), §III(본문 유형), §V(존재론적 근거)의 수렴적 논증들에 근거한다.

10) T. R. Schreine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8), 209-254, 295-330;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253-307, 352-390.

11) Vos, *Pauline Eschatology*, 136-149.

이 바울 본문을 제약하는 적절한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스의 종말론적 설명은 이러한 조율된 공동 현존(Coordinated Co-presence)의 성격을 조명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일한 종말론적 사건(Single Eschatological Event)으로서, 즉 근원사건(Ureignis)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법정적 판결(Forensic Verdict)과 참여적 연합(Participatory Union) 모두 동시에 작동한다. 어느 쪽도 다른 것으로부터 파생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둘 다 그들 각각의 형식적 조건들(Formal Conditions) 아래 동일한 구속사적 실재(Same Redemptive-Historical Reality)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4. 갈라디아서 2장 16-20절과 에베소서 1장 3-14절: “문법”과 “공동지시”

갈 2장 19-20절에서, 2장 19b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에서 2장 20a절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개역개정)로의 전환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변사(de)는 인과적이거나 연속적인 연결사가 아니라 특정화하는 계속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명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동일한 주체가 또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주체이다. 두 절은 어느 절도 다른 것을 근거 짓거나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단일한 지시체를 공유한다. 본문에 대한 해석학적 관찰은 이 구절들이 바울 헬라어가 설명적 파생을 의도할 때, 사용하는 종속 표지들, 가령 인과적(hoti), 결과적(höste), 목적적(hina) 표지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당연히 이러한 부재는 비파생의 가능성(Possibility of Non-derivation)을 논리적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계에 관해 부정적 제약의 성격을 가진다. 말하자면 그것은 본문이 파생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지, 본문에서 파생적 설명 방식이 형식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확립하지는 않는다.¹²⁾

엡 1장 3-14절에서, en autō 구절은 무려 열 번이나 등장하며, 바울은 두 용어 모두에서 복들을 위치시키는 공통적인 통사적 틀(Common Syntactic Framework)로서 사용한다. 곧 선택과 양자됨(4-5절, 참여적), 구속과 죄사함(7절, 법정적), 성령의 인치심(13절, 참여적), 그리고 기쁨(11, 14절, 법정적-참여적)에 관한 내용들이다. 본문은 쌍으로 된 복의 목록이 외부의 다른

12) 갈 2:20a에서 de의 문법적 기능이 계속-특정(Continuative-Specifying) 불변사로서 R. N. Longenecker, *Galatians*, WBC 41 (Dallas: Word, 1990), 92-94; F. J. Matera, *Galatians*, Sacra Pagina 9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96-98; J. D. G. Dunn, *Galatians*, BNTC (London: A&C Black, 1993), 144-148에 의해 주목된다. 문법적 공동지시(Co-reference)로부터 설명적 파생의 부재로 나아가는 추론은 명료화가 필요하다. 공동지시체를 갖는 두 명제가 그것 때문에 설명적 관계에 있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공동지시는 설명과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 이끌어내는 추론은 공동지시만으로부터가 아니라 공동지시의 유형으로부터이다. 바울 본문은 일관되게 두 용어들을 동일한 통사적 틀 안에 위치시키면서도 그 목적을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적 표지들(인과적 hoti, 결과적 höste, 목적적 hina)을 통한 종속을 지시하지 않는다. 관련 코퍼스 전체에 걸친 그러한 표지들의 부재는 부정적 본문 제약을 구성한다. 본문들은 모델들이 부과하는 파생을 지지하지 않는다. 분절적 상호필연성에 대한 긍정적 사례는 이 제약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통해 또는 어느 하나의 복으로부터 다른 복으로 수여된다고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둘 다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수여받는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틀은 다양한 기저의 관계 구조들과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본문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설명적 파생을 가리키는 종속의 의미 맥락과 함께 우선성의 순서를 정하는 의미 맥락이다. 또 다시 본문의 제약하는 관계성은 부정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본문에 파생적 성격을 부과하는 대부분의 모델은, 본문이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관계 구조와 내용을 본문 속에 인위적으로 집어 넣어서 읽고 있다고 하겠다.¹³⁾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검증 사례를 제시해 준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넘겨지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살아나셨다”(개역개정)고 하는 본문에 대해 여러 경쟁하는 법정적 및 참여적 읽기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 논자는 이 구절은 칭의와 연합의 어느 한 차원을 다른 것에 종속시키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단일 사건(Single Event of the Resurrection) 안에서 동시적으로 관계 맺으며 작용하는 두 차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제안한다. 우선 이 구절의 문법은 우선성에 관한 그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는다. 이와 구별되게 이 구절은 하나의 주어 안에 조율된 두 차원이 존재론적(Ontological)으로 긍정적으로 존립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¹⁴⁾ 물론 논자의 주장은 조율된 비환원적-비파생적 상호 필연성(Coordinated, Non-reducible, Non-derivative Mutual Necessity)이 상기 본문에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지, 논자의 해석학적 입장 이외의 다른 모든 대안적 읽기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본문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법정적 용어(Forensic Terms)와 참여적 용어(Participatory Terms)가 설명적 위계의 표지들 없이 함께 유지된다는 것이고, ‘분절적 상호 필연성’에 대한 긍정적 사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13) 엡 1.3-14에서 en autō의 밀도(열두 절에 걸쳐 열 번 등장)는 널리 주목된다. H. W. Hoehner,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155-259; A. T. Lincoln, *Ephesians*, WBC 42 (Dallas: Word, 1990), 9-56; F. Thielman, *Ephes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29-104를 보라. 공통 en autō 틀로부터 용어들 사이의 매개 부재로 나아가는 추론은 통사적 동일성만으로부터가 아니라 통사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부터이다. 종속 표지 없고, 순서 한정사 없으며, 하나의 복 세트를 다른 것의 통로로 연결하는 통해(through) 전치사 없는 이 신학적 틀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 용어들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확립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 그들의 관계를 결정하지 않지만, 하나가 다른 것으로 가는 경로로 제시되지 않고 두 용어 모두 수여받는다는 것을 확립한다.

14) 롬 4.25의 법정적 해석에 대해서는 Schreiner, *Romans*, 244-247; C. E. B. Cranfield, *Romans*, 2 vols., ICC (Edinburgh: T&T Clark, 1975), 1:251-252를 보라. 참여적-종말론적 해석에 대해서는 Vos, *Pauline Eschatology*, 149-156; R. B. Gaffin Jr., *Resurrection and Redemption* (Phillipsburg: P&R, 1987), 114-121을 보라. Moo, *Romans*, 290-295는 이중 지시를 주목하지만 여기서 전개되는 체계적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IV. 세 모델과 그 구조적 한계

개핀, 페스코, 호튼이 공유하는 것은 신학적인 오류가 아니라 방법론적 곤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세 입장들은 비환원적 조율(Non-reducible Coordination)이라고 하는 일종의 형식적-방법론적 이해(Formal-Methodological Understanding)로 수렴되는 주요한 내용으로서 여러 통찰들을 보존한다. 핵심적으로 말해서 세 명의 신학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앞서 한 차례 언급된 것처럼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설명하지 않을 때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관계성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형식적 설명이 없으면, 손쉬운 관계 도식은 설명적 의존의 방식이므로, 각 모델은 자신의 문법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의적 용어들을 통해 자신의 논증을 전개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신학적 의도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형식적-방법론적 이해가 부재할 때 발생하는 일이다.

1. 개핀: 설명적 종속으로서의 “연합 우선성”

개핀은 구원이 결코 그리스도 자신과 별개로 소유되지 않는다고 올바르게 주장하며, 성경 주석적 엄격성과 구속사적 관점은 그의 진정한 신학적 강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핀의 설명 구조는 “칭의”를 주요한 구원론적 범주(Major Soteriological Category)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의 더 포괄적인 참여적 틀 안에 위치시킨다.¹⁵⁾ 구조적 한계는 그가 진술한 결론, 곧 칭의가 참여적 틀 안에서 그 자체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역설한 확언들에 있지 않다. 이것과 다르게 문제의 핵심은 그가 전개한 설명적 구조(Explanatory Structure)에 놓여 있다.¹⁶⁾ 이를 상술하면 칭의가 포괄적인 구원론적 맥락으로서 연합 “안에서” 그리고 연합을 “통해서” 이해될 때, 법정적 용어는 참여적 틀에 대해 다만 형식적으로만 응답하게 되고, 이것은 칭의와 연합을 설명적 관계를 통해 이해할 때 생기는 한계성이다.

개핀의 설명에서의 추가적 어려움은 더 주의 깊은 처리를 요구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본 논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도 보스적인 맥락의 근원사건, 곧 우어아이그니스(Ureignis) 틀에 의존한다. 독자는 본 논문이 그 틀로부터 ‘분절적 상호 필연성’을 도출하는 것이 적법한 반면, 개핀이 동일한 틀로부터 ‘연합 우선성’을 도출하는 것이 왜 불합리

15) R. B. Gaffin Jr., *By Faith, Not by Sight*, 40–44; idem, “Jus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d. D. W. Hall and P. A. Lillback (Phillipsburg: P&R, 2008), 255; idem, *Resurrection and Redemption*, 135.

16) 설명적 구조(Explanatory Architecture)라는 용어는 모델에서 작동하는 파생의 구조적 유형을 지시하며, 그것이 확인하는 신학적 내용과 구별된다. 개핀이 명시적으로 한정하는—칭의가 참여적 틀 안에서 자체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는—것은(Cf. *By Faith, Not by Sight*, 44)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조는 개별 교의적 확인의 수준이 아니라, 용어들 사이의 조직화 관계의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 것인지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자의 대답은 개편의 연합 우선적 설명 모델은 칭의와 연합을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는 점에 있다. 개편 자신이 강조한 것처럼, 보스의 방법은 구속사적 자료(Redemptive-Historical Data)에 어떤 외부적 Anordnung(순서 부여)을 부과하는 것에 저항한다. 자료 자체의 구조가 체계적 구성을 규율해야 한다(Vos, *Pauline Eschatology*, 11-41)는 것이 보스의 근본 입장인 것이다. 개편은 이 저항을 두 시대의 종말론적 순서 부여에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단일한 구원 행위 내에서 법정적 차원과 참여적 차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편이 연합 우선성에 기본하여 근원사건을 받아들이는 때, 이는 분할되지 않는 부활 사건의 일체적 성격을 강조한 보스의 주장에 분할적 순서 부여의 개념을 덧붙인 것으로 분별해 볼 수 있다.

개편의 견해와 달리 논자는 우어아이그니스에 우선적 순서 부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of Prior Ordering)을 덧붙이지 않는다. 개편이 주창한 관점과 대별하여 본 논문은 개혁파 전통에서 강조되어온 분리불가능성과 또한 성경 본문이 가진 부정적 제약 성격, 그리고 부활과 같은 ‘행위의 비분할적 차원’(Indivisible Dimension of the Act)이 설명적 순서 부여(Explanatory Ordering)에 끊임 없이 저항한다는 존재론적 이해(Ontological Understanding)를 바탕으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개념을 제안한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개념을 통해, 비로소 보스가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한 칭의와 연합의 존재론적 근원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보다 엄밀한 형식적 규정성(Formal Determinacy)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¹⁷⁾

2. 페스코: 대칭적 한계로서의 “칭의 우선성”

페스코는 칭의가 가진 법정적인 특수성(Forensic Specificity)의 개념을 온전히 지켜내고, 그것이 일반화된 참여적 도식(Generalized Participatory Schema) 안으로 용해되는 것에 저항한다. 그의 설명은 개편이 한 작업을 정반대로 역전시킨 것으로 법정적 판결은 연합이 그 위에 놓이는 법적 기초(Forensic Foundation)를 구성한다.¹⁸⁾ 이러한 사유 작업은 개편과는 또 다른

17) 개편의 자체적 우어아이그니스 틀이 연합-우선성을 배제한다는 논증은 근원사건이 두 차원을 동시에 근거지운다는 관찰을 넘어서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존재론적 근거 짓기의 동시성이 적용이나 수용의 수준에서 설명적 우선성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답변은 근원 사건의 틀이 Vos가 전개한 대로 단지 동시적 근거 짓기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자료의 자체 구조가 체계적 구성을 규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외부적 Anordnung(순서 부여)을 자료에 부과하는 것에 저항한다는 것이다(Vos, *Pauline Eschatology*, 11-41). 개편은 이 보스적 저항을 시대들의 종말론적 순서에는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단일한 구원 행위 내에서 법정적 차원과 참여적 차원의 관계에는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 비대칭적 적용이, 한 수준에서는 외부적 순서부여에 저항하면서 다른 수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틀이 공급하지 않는 추가적 전제이다. 본 논문의 주장은 근원 사건이 논리적으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을 함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파생성에 대한 규범적 사례를 강력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닳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차원이 하나의 비분할적 행위에서 동시에 근거지워진다면, 하나의 차원을 다른 것에 설명적으로 종속되는 것으로 다루는 어떤 모델이든 그 행위의 통일성이 그 종속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진다.

반대 극단에서 진행된 연구이지만, 신학함의 의도 그 자체에 있어서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법정적 판결이 설명적으로(Explanatorily) 또한 구성적으로(Constitutively) 기능할 때, 참여적 용어는 그것에 형식적으로만 이해될 여지가 크다. 여기서 구조적인 어려움은 개편의 것과는, 마치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서로 대칭적이라는 점에 있는데, 개편과 페스코의 이러한 두 대칭적 모델 사이의 관계성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부연하면 여기서 주된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 설명적 우선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연합의 문제에 있어 설명적 관계 설정은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 하는 문제의 지평이다.

페스코의 가장 강한 논증은 coram Deo 주장이다. 죄인은 그리스도와와의 교제가 이해 가능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확립된 위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페스코의 이 논증은 진정한 설득력을 가지지만, 두 분석 수준을 혼동한다. 적용의 ordo(ordo applicationis) 수준에서 유익들이 경험되고 분절되는 방식에는 시간적 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적 비대칭이 교의적 분절 수준에서 문법적 파생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파생 가능성은 시간적 또는 경험적 관계가 아니라 논리적 관계(Logical Relationship)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칭의가 먼저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 연합은 칭의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3. 호튼: 설명적 상승으로서의 “언약적 종합”

호튼의 언약적 틀(Covenantal Framework)은 법적 주체(Forensic Subject)와 참여적 주체(Participatory Subject) 사이의 극적인 대립을 피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개편과 페스코가 설명적 관계를 수평으로 위치시키는 곳에서, 호튼은 그것을 수직으로 이동시킨다. 칭의와 연합 두 용어 모두 공통의 제3항으로서의 은혜언약(Covenant of Grace)으로부터 해명된다. 결국 설명적 의존의 성격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수준만큼 상승한 것이다.¹⁹⁾

더 면밀한 분석은 상승이 진정한 대칭을 산출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호튼의 틀 안에서, 언약의 법적 구조(Forensic Structure of the Covenant)는 언약적 교제(Covenantal Communion)가 확립되는 구성적 기초(Constitutive Foundation)로 기능한다. 참여적 차원은 선행하는 법정적

18) J. V. Fesko, *Justification* (Phillipsburg: P&R, 2008), 215–250; idem, *Beyond Calvin*, 57–145, 280–320.

19) Horton, *Covenant and Salvation*, 130–167. 은폐된 법정적 우선성은 구조적 추론이다. 호튼은 일관되게 은혜언약을 근본적으로 법적 배열(14–20, 108–115)로 기술하며, 그 안에서 법정적 선언이 주관적 유익들이 수여받는 객관적 기초로 기능한다(155–160). 연합이 칭의 이후의 논리적 또는 경험적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는 호튼의 명시적 주장(161–162)은 인정된다. 진단적 주장은 언약적 구조의 구조적 논리가 법정적 용어에 참여적 용어가 상호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설명적-구성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호튼의 명시된 결론과 그의 작동하는 관계적 도식 사이의 구별은 개편에 대해 앞서 제시한 구별과 방법론적으로 유사하다.

구조 안에서 수여받는데, 이는 보스의 견지와 극명하게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스의 구속사적 방법은 두 차원을 법적 배열의 두 산출물이 아니라 하나의 비분할적 구속적 사건의 구별되는 두 차원들로서 그것을 또한 단일한 *Ureignis*(우어아이그니스)인 부활 안에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호튼에게 은혜언약은 참여적 유익들이 분배되는 일종의 법적인 모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스의 구조는 호튼의 언약적 논리가 미묘한 형태로 도입하는 설명적 우선성을 결코 전제하지 않는다.²⁰⁾

이제 [표 1]은 세 모델을 체계신학에 가용한 관계 형식들의 전체 범위에 대비하여 도표화하며, 각각에 대해 그 관계적 선택으로부터 따르는 구조적 결과를 확인한다.

표 1.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관계 형식들

관계 유형	논리적 형식	대표 모델	구조적 결과
단방향 파생 (참여적 → 법정적)	<i>A가 B를 근거 짓는다</i>	개핀	법정적 용어가 문법적 독립성을 잃음; 법정적 선언이 적절한 수신자로서의 참여적 지평을 결여함
단방향 파생 (법정적 → 참여적)	<i>B가 A를 근거 짓는다</i>	페스코	참여적 용어가 <i>coram Deo</i> 정밀성을 잃음; 참여적 기술이 법정적 판결의 파생물이 됨
공통 근거로부터의 파생	<i>C가 A와 B 모두를 근거 짓는다</i>	호튼	설명적 의존이 언약적 구조로 상승됨; 은폐된 법정적 우선성이 공통 근거 안에서 작동 유지됨
논리적 동치	$A \leftrightarrow B$	(없음)	두 교의 사이의 구분이 붕괴됨; 별도의 분절이 불필요해짐
단순한 양립가능성	<i>A와 B는 일관된다</i>	(없음)	어느 쪽이 왜 다른 쪽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음; 양방향 교의적 왜곡에 대한 보호 제공하지 않음
분절적 상호필연성	$A \Leftrightarrow B$	본 논문	두 용어들의 형식적 독립성 보전; 각각은 다른 것의 설명적 원천이 되지 않으면서 비왜곡적 표현의 규범적 공동조건을 제공함

A = 칭의(법정적 용어); B = 그리스도와의 연합(참여적 용어); C = 공통 설명적 근거;
 $\Leftrightarrow$ = 상호 규범적 제약(비파생적)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두 용어들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그들 사이의 확정적이

20) Vos, *Pauline Eschatology*, 136–149, 231–260. 체계적 환원에 대한 보스의 저항에 대해서는 R. B. Gaffin Jr., “Geerhardus Vos and the Interpretation of Paul,” in *Jerusalem and Athens*, ed. E. R. Geegan (Phillipsburg: P&R, 1980), 228–237을 보라.

고도 긍정적 관계를 명시하는 유일한 형식이다. 단순한 양립가능성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만 두 번째는 충족하지 않고, 파생 형식들은 어느 쪽에도 충족하지 않는다.

4. 세 가지 모델에 대한 공통적 진단

개편은 참여적인 것 안에 법정적인 것을 근거 짓는다. 페스코는 방향을 역전시킨다. 호튼은 동일한 논리를 연약적 구조의 수준으로 상승시킨다. 각 경우에 결과는 자신의 문법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의적 용어들에 걸쳐 부과된 설명적 관계이다. 이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세 저자의 통합적인 신학적 의도로부터 출래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형식화된 대안의 부재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세 명 모두의 진정한 통찰들, 곧 개편의 유익들을, 유익을 주는 분으로부터 추상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 페스코의 법정적 특수성 보호, 호튼의 법적 주체와 참여적 주체를 대립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 비판의 희생물이 아니라 비판 그 자체에 대한 계승적인 맥락의 산물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V. 비환원적 교의 조율: 구성적 제안

구성적 제안에는 세 분석 수준이 같이 작동하며, 이들을 분리하여 유지하는 것이 논증의 정합성에 필수적이다. 첫 번째 수준은 구속사적 존재론의 영역(Domain of Redemptive-Historical Ontology)이다. 즉 법정적 무죄 선언과 참여적 통합이 하나의 비분할적 사건인 동시에 참되게 구별되는 두 차원들로 작동되는 보스가 주창한 근원 사건(Ureignis)로서의 부활의 차원이다. 두 번째 수준은 논리적 형식의 차원인데, 부활의 존재론적 구조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교의적 용어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스는 첫 번째 수준에서 다른 신학적 전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해석학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는 두 번째 수준에서 어떤 형식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고, 본고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설명하여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수준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방법론적인 규범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논리적인 형식이 엄밀하게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되고 그것이 체계신학으로서의 조직신학에 일정한 방법론적 조건으로서 제시 및 수용된다.²¹⁾

더 넓은 개혁파 전통을 열람해 보았을 때, 이러한 방법론적 사유의 형식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설명 체계를 구축한 신학자는 바빙크이다. 바빙크는 자신의 『개혁교회 의학』(Reformed Dogmatics, 1895-1901에서 구원의 유기적 통일성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이를 어떤 유익도 다른 것의 파생물들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물론 바빙크

21) Vos, *Pauline Eschatology*, 11-41, 136-149. 여기서 구별되는 세 수준들은 분석적으로 구별된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설명적 파생이 아니라 점진적 명세화(progressive specification)의 관계이다.

는 이 통일성에 관한 형식적-논리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의 사유의 틀은 논리적 명징화 보다는 유기적 은유의 수준에 머문다. 그러나 그가 구원 유익들의 통일성은 구성적으로 분화되는 것이라고 방향 잡은 그 통찰은 본 논문에서 정초된 분절적 상호 필연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와 정확하게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²²⁾

1. 형식적 정의

비환원적인 교의적 조율의 관계는, 두 교의적 문법 형식 각각이 공유된 구속사적 틀 안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으면서도, 상대방의 비왜곡적 표현을 위한 공동조건으로서 서로를 요청하는 관계를 가리킨다²³⁾ 칭의와 연합 사이의 진정한 비대칭들, 예를 들어 적용의 순서(ordō)에서 법정적 판결의 코람데오(coram Deo)우선성과 같은 것은 교의적 분절 수준에서 문법적 파생들이 아니라 공유된 경륜 안에서의 실질적인 비대칭들이라 할 수 있다.

2. 삼중 근거

세 증거 계열이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들이 동등한 비중을 가지지는 않는다. 존재론적 근거가 가장 근본적이다. 오직 그것만이 비파생이 왜 적절한 관계 형식인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이유를 제공한다.²⁴⁾ 그 다음으로 성경 본문에서, 바울적 증거는 법정적 용어와 참여적 용어가 설명적 위계의 표지들 없이 조율된 근접성 안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설명적 모델들에 증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제약을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개혁파 전통에서 발견되는 분리 불가능성 정식화들, 곧 칼빈의 이중 은혜, 투레틴의 실재적 구별(realiter distinct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출된 동시적 수용과 같은 이해는 이미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 명시화한 것을 내용적으로 앞서 함축한다. 어느 유익도 두 유익 모두를 왜곡하지 않고는 다른 것으로부터

22) H.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 Bolt, trans. J. Vriend, 4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08), 3:521-595 and 4:246-254. Barth Pass, *The Heart of Dogmatic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0), 142-168을 보라.

23) 자연스러운 반론은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 다른 이름 아래 또 다른 유형의 우선성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 상호 필연적 조건부여(Mutual Necessary Conditionality)와의 구별은 논리적이다. 상호 필연적 조건 부여(A는 존재나 예화를 위해 B를 필요로 하고 B는 A를 필요로 한다)는 존재론적 의존 관계이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표현적 충분성 조건들의 관계이다. 각 교의는 다른 것의 존재가 아니라 비왜곡적 정식화를 위한 조건들을 설정한다. 칭의가 연합 없이 충실하게 진술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칭의가 존재를 위해 연합에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칭의를 선언하는 발화 수반적 행위가 연합이 제공하는 담론적 지평 내에서만 그것의 적절한 수신자를 달성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24) 존재론적 근거는 다른 둘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과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본문적 근거는 부정적 제약을 확립한다(본문들이 파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역사적 근거는 선례를 확립한다(전통이 비환원을 유지해 왔다). 오직 존재론적 근거만이 비파생이 왜 적절한 관계 형식인지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독립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만약 두 차원이 비분할적 부활 행위에서 동시에 작동된다면, 그들 사이의 어떤 설명적 순서 부여된 행위의 자체 구조가 공급하지 않는 우선성을 도입해야 한다. Cf. Vos, *Pauline Eschatology*, 136-149; Gaffin, *Resurrection and Redemption*, 121-135를 보라.

도출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²⁵⁾ 존재론적으로, 종말론적 권원 사건으로서 부활은 하나의 비분할적 행위의 참되게 구별되는 두 차원들로 법정적 무죄 선언과 참여적 통합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만약 두 차원이 동일한 비분할적 사건에 근거한다면, 하나를 다른 것으로부터 설명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다루는 어떤 모델이든 그 행위의 비분할적 성격이 그러한 파생을 배제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필연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하지만 검토된 세 모델 중 그 어느 것도 이것을 보여줄 수 없다.

3. 실제에서 비환원적 조율이 요구하는 것

실천적 결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귀결된다. 참여적 지평 없이 단지 칭의로부터만 그 자체의 독립적 함의들로 나아가는 신학적 설명은, 칭의를 그것의 원천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배제된 추상적이지 거대한 법정적 판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반대로 법정적 지평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 자체로부터 그것이 가진 함의들로 진행되는 설명은 개혁파 전통에서 항상 강조해온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차원이 완전히 미분화된 상태로 남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같은 경향들 사이에서 적실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을 인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와 같은 설명적 체계에 의존하는 어떤 이론 생성의 사고 방식적 틀 자체를 반성적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사상적으로 다시금 환기시키고자 한다.²⁶⁾

VI. 설교적·목회적 함의

위에서 분석된 왜곡들은 설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한 용어가 교의적 분절 수준에서 설명적으로 앞선 것으로 다루어진다면, 의식적으로 그러한 순서 부여가 의도되지 않은 곳에서도 동일한 비대칭이 강단의 문법을 형성하게 된다.

법정적 용어가 참여적 지평 없이 설교될 때, 구원은 완성된 법적 거래가 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설교의 중심에서 물러나며, 성화는 완성된 사건에 덧붙여진 한갓 외부적 요건으로서 나타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감추어진 삶의 지속적 펼쳐짐이 선포되지 않는다(골 3:3). 이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형, 즉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된 동일한 주체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는 설교는 설명적 의존 모델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적합한 방식의 설교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법정적 지평 없이 설교될 때, 참여적 언어는 그것을 내적 변화의

25) M. A. Garcia, *Life in Christ*, 195–220; W. B. Evans, *Imputation and Impartation*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8), 280–310. 튜레틴의 레알리터 디스탕타(realiter distincta)에 대해서는 *Institutes* 16.3.1–22 (2:654–667)을 보고, 두 용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보존에 대해서는 XI.i–iv와 XIII.i를 보라.

26) O. D. Crisp, *Analysing Doctrine*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97–115; K. J.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200–220.

과정으로 구성하는 어떤 설명으로부터든 그것을 구별하는 코람데오의 정밀성을 잃는다. 법정적 용어 없이, 참여적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미 내려진 판결의 살아진 현실이 아니라 되어감의 과정으로 구성하는 그 어떠한 설명 체계에도 동원될 수 있다. 로마서 6장 1-11절, 곧 바울이 믿는 자의 죄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정적으로나 참여적으로 일어난 것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이 본문은 이와 같은 참여의 존재론적 흡수와 동화에 저항한다.

수동성을 생성하는 법정적 확신, 또는 불안을 생성하는 참여적 생동성은 교의적 문법 이해의 실패에 따른 구조적 결과이다. 이에 따른 목회적 위험은 전혀 사소하지 않다. 그렇다고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 모든 설교에서 포괄적-교의적 설명을 위한 처방전이 될 수는 없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은 모든 개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은 특정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고유한 문법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이면서도 방법론적인 규범이다. 이것은 더 많은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 방법론적 틀이 아니라,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보다 정돈된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틀이다. 이를 통해 양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설교와 그것에 따른 목회적 부작용과 위험을 어느 정도 미연에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된다.²⁷⁾

VII. 맺음말: 교의적 통일성의 형식

앞서 고찰한 세 모델은 동일한 방법론적 곤경을 공유한다.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느 쪽도 다른 쪽을 설명하지 않을 때 그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형식적 설명이 없으면, 설명적 의존이 기본값으로 그 공백을 채운다. 이것이 개편, 페스코, 호튼에게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본 논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루고자 한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여기서 제시된 설명은 단순히 철학적인 대체 이론 수립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혁파 전통 그 자체에 놓인 신학적 연속성, 바울의 본문적 유형, 그리고 부활의 존재론적 구조에 바탕하여 마련된 것이다.²⁸⁾

개혁파 전통에서 말한 분리불가능성을 교의적인 분절의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개념화하여 분절적 상호 필연성으로 제안한 것이다.²⁹⁾ 법정적 용어의 발화수반적 구조는 참여적 지평을 적절한

27) 법정적-지배적 설교의 병폐는 T.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6), 80-95에 의해; 법정적 환원의 신학적 위험은 B. L. McCormack, “What’s at Stake in Current Debates over Justification,” in *Justification: What’s at Stake in the Current Debates*, ed. M. Husbands and D. J. Treier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4), 81-117에 의해 확인된다. 참여적-지배적 병폐는 Evans, *Imputation and Impartation*, 그리고 신학적으로 M. S. Horton, *Christless Christianit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103-145에서 분석된다. 비록 호튼의 치유책이 위의 논의에서 논증되듯 다른 방향에서 왜곡을 다시 설정할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28) J. V. Fesko, *Justification*, 215 - 250; M. A. Garcia, *Life in Christ*, 195 - 220; Horton, *Covenant and Salvation*, 130-167.

수신자의 조건으로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와의 생동하는 교제 밖에 서 있는 수신자에게 발해진 의의 선언은 적절한 상대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참여적 용어의 연합적 구조는 법정적 지평을 코람데오의 확정적 위치를 위해 요청할 수밖에 없다. 법정적 판결로부터 단절된 그리스도 안으로의 연합은 그것이 가진 신학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어느 쪽도 다른 것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둘 모두 상대를 필요로 한다. 개혁파 전통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앎을 명시적인 것으로 정립하지 않았다. 즉 칭의와 연합과 관련하여 신학적 왜곡으로 경향하게 만드는 세 가지 구조적 압력을 진단 가능하도록 하는 형식적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구속력은 존재론적인 실재의 수준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한다. 종말론적 우어아이그니스로서의 부활은 하나의 비분할적 사건의 참되게 구별되는 두 차원들로서 법정적 무죄 선언과 함께 참여적 연합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보스는 이것을 비교불가능한 명료함으로 보았다. 보스가 제공하지 않았지만 본 논문이 공급하는 것은 이 존재론적 구조가 교의적 분절 수준에서 함의하는 논리적 관계에 관한 형식적 설명이다. 본 제안은 보스의 존재론적 설명을 계승하고, 보스가 암묵적으로 남긴 형식적 결과를 명시화한다. 논쟁은 설명적 우선성의 한 방향에 대한 더 나은 논증들을 발견함으로써 해결되거나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문제라고 인식될 때, 그리고 본 논문이 공급하는 형식적 설명이 실제적인 대답으로 가시화될 때, 어떤 새로운 이해의 지경이 열리게 될 것이다. “어느 용어가 다른 것을 어떻게 근거 짓는가?” 하는 물음이 아니라, “상호 필연적이면서도 상호 파생적이지 않은 두 용어들이 어떻게 사도적 증언과 전통의 최선의 판단들이 항상 요구해 온 충실성으로 체계신학 안에서 함께 유지될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더 큰 신학적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³⁰⁾

29) J. Webster, *God Without Measure*, vol. 1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48 - 58; Vos, *Pauline Eschatology*, 136 - 149; Gaffin, *Resurrection and Redemption*, 121 - 135.

30) W. B. Evans, *Imputation and Impartation*, 280 - 310. 여기서 전개된 분석적 도구들, 곧 설명적-분절적 구분, 분절적 상호필연성, 우선성-순서부여 모델들의 구조적 한계 식별 등은 체계신학이 형식적으로 구별되는 문법들에 의해 규율되는 두 교의적 좌표들(loci)을 일정한 관계 맥락 속으로 도입할 때마다 적용될 수 있다. 순종의 단일한 행위에서 신적 주체성과 인간적 주체성 사이의 기독교론적 관계는 칭의와 연합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4 vol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2008.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2 vol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60.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2 vol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75.
- Crisp, Oliver D. *Analysing Doctrine: Toward a Systematic Theology*.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9.
- Dunn, James D. 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A&C Black, 1993.
- Evans, William B. *Imputation and Impartation: Union with Christ in American Reformed Theology*.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8.
- Fesko, J. V. *Justification: Understanding the Classic Reformed Doctrine*. Phillipsburg: P&R, 2008.
- Fesko, J. V. *Beyond Calvin: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in Early Modern Reformed Theology (1517–170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2.
- Fine, Kit. "Guide to Ground." In *Metaphysical Grounding*, edited by F. Correia and B. Schnieder, 37–8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Gaffin, Richard B., Jr. *Resurrection and Redemption: A Study in Paul's Soteriology*. Phillipsburg: P&R, 1987.
- Gaffin, Richard B., Jr. "Jus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dited by D. W. Hall and P. A. Lillback. Phillipsburg: P&R, 2008: 248–269.
- Gaffin, Richard B., Jr. *By Faith, Not by Sight: Paul and the Order of Salvation*. 2nd ed. Phillipsburg: P&R, 2013.
- Garcia, Mark A. *Life in Christ: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Milton Keynes: Paternoster, 2008.
- Gorman, Michael J. *Inhabiting the Cruciform God*. Grand Rapids: Eerdmans, 2009.
- Hoehner, Harold W. *Ephesian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2002.
- Horton, Michael S. *Covenant and Salvation: Union with Chris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7.
- Horton, Michael S. *Christless Christianit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 Lincoln, Andrew T.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42. Dallas: Word, 1990.
- Lindbeck, George A. *The Nature of Doctrine: Religion and Theology in a Postliberal Ag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41. Dallas: Word, 1990.
- Long, Thomas G. *The Witness of Preaching*.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6.
- Matera, Frank J. *Galatians*. Sacra Pagina 9.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2.
- McCormack, Bruce L. "What's at Stake in Current Debates over Justification." In *Justification: What's at Stake in the Current Debates*, Edited by M. Husbands and D. J. Treier.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4: 81–117
- Moo, Douglas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Pass, Barth. *The Heart of Dogmatics: Christology and Christocentrism in Herman Bavinc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0.
- Schaffer, Jonathan. "On What Grounds What." In *Metametaphysics*, Edited by D. Chalmers, D. Manley, and R. Wasserman. Oxford: Clarendon Press, 2009: 347–383
- Schreiner, Thomas R. *Rom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8.
- Searle, John R.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Thielman, Frank. *Ephesians*.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0.
- Torrance, T. F. *Theological Sci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Translated by George Musgrave Giger. Edited by James T. Dennison Jr. 3 vols. Phillipsburg: P&R, 1992–1997.
- Vanhoozer, Kevin J.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 Vanhoozer, Kevin J. *The Drama of Doctri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 Vos, Geerhardus. *The Pauline Eschatolog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30.

- Repr. Phillipsburg: P&R, 1994.
- Webster, John. *God Without Measure: Working Papers in Christian Theology*. Vol. 1.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5.
- Westminster Assembly.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

논문초록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연관 짓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구조적 공백, 즉 어느 한쪽도 다른 쪽에서 도출될 수 없을 때, 이 두 교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설명적 관계와 분절적 관계를 구분하여, 개핀, 페스코, 호튼이 공통적인 구조적 한계를 공유함을 밝힌다. 이들은 각각 문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역 간에 설명적 의존성을 강요한다. 이러한 모델들을 대신하여, 논자는 분절적 상호 필연성에 의해 파악되는 비환원적인 교리적 조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조화는, 개혁파 전통에 입각한 고유한 신학적 입장과 바울 서신 본문에 나타난 일정한 패턴, 그리고 종말론적 부활의 차별화된 통일성에 각각 독립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주제어: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의적 문법, 설명적·분절적 관계, 분절적 상호 필연성, 게할더스 보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환원 없는 조율: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의적 문법, 그리고 개혁파 구원론에서 설명적 의존의 한계	발표자	문정수
		논찬자 (소속)	이재욱 (신칼뱅주의연구소/대표)

1. 연구의 논지

본 논문은 개혁파 구원론에서 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다루는 기존 세 모델(개편의 연합 우선성, 페스코의 칭의 우선성, 호튼의 언약적 종합)이 공유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진단한다. 논자는 설명적 의존 관계의 부과가 교의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과 대안으로 분절적 상호 필연성이라는 형식적 범주를 제안한다. 이 테제의 강점은 세 모델 각각의 신학적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공유하는 구조적 전제를 정밀하게 식별하려 한다는 점이다.

2. 논문의 기여점

첫째, 문제 설정의 정밀성이다. 논문은 칭의-연합 논쟁이 지속되는 원인을 특정 모델의 우열이 아니라 설명적 의존이라는 방법론적 틀 자체에서 찾는다. 이 진단적 관점의 전환은 논쟁사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전제하며, 메타-방법론적 수준에서 문제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둘째, 균형 잡힌 세 모델의 분석이다. 개편, 페스코, 호튼 각각에 대한 비판이 신학적 오류가 아닌 방법론적 곤경으로 규정된다는 점은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바람직한 학적 태도이다. 특히 호튼의 언약적 종합이 설명적 의존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한 수준 상승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진단은 기존 논의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던 통찰이다. 셋째, 개혁파 전통의 내적 논증이다. 칼빈의 이중 은혜, 튜레틴의 *realiter distincta*,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동시적 수납을 분절적 상호 필연성의 선례로 제시함으로써, 제안이 외부에서 수입된 철학적 구조가 아니라 전통 내적 함축의 명시화임을 논증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있다.

3. 제안 및 질문

(1) 논자는 기존 세 모델이 설명적 의존을 부과함으로써 교의적 왜곡을 초래한다고 진단한 뒤, 분절적 상호 필연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실제로 수행하는 이론적 작업은 무엇인지요? 고전적 정식화 이상으로 어떤 추가적 설명력을 제공하는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 논문은 분절적 상호 필연성과 같은 형식적 설명이 부재했기 때문에 개편, 페스코, 호튼이 설명적 의존의 도식에 빠져든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적 주장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습니까? 세 신학자가 설명적 의존을 채택한 이유가 형식적 대안의 부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들 각자의 신학적 확신에 기초한 적극적 선택이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상사적 또는 방법론적 근거가 있으신지요?

(3) 설명적 관계의 구조 안에서도 종속된 항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존하는 더 정교한 모델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A가 B의 맥락 안에 위치한다는 것이 반드시 B가 A를 파생시킨다는 것을 함축합니까? 포함하면서도 환원하지 않는 관계, 즉 비환원적 포함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성은 어떤 논증에 의해 확립됩니까?

(4) 논자는 교의적 문법 개념을 오스틴, 설, 반후저의 언어행위 분석에 근거하여 구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의를 선언적 행위로, 연합을 참여적 통합의 기술로 파악하는 것은 언어행위 이론 없이도 개혁파 전통 안에서 이미 충분히 확립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행위 이론이라는 철학적 장치가 이 구분에 실질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이 이론적 틀 없이는 도달할 수 없었을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5) 논자는 개편이 보스의 *Ureignis*[근원사건] 틀로부터 연합 우선성을 도출하는 것을 비대칭적 적용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보스는 구속사적 자료에 외부적 *Anordnung*[배열]을 부과하는 것에 저항했는데, 개편은 이 저항을 시대론적 수준에만 적용하고 단일 구원 행위 내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자 자신도 동일한 *Ureignis* 틀로부터 분절적 상호 필연성을 도출합니다. 논자는 이것이 논리적 함축이 아니라 존재론적 닻이라고 구별하셨지만, 개편도 자신의 연합 우선성을 *Ureignis*의 함축이 아니라 *Ureignis*가 제공하는 존재론적 닻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구성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논자의 활용과 개편의 활용 사이의 차이가 원칙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도의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4. 형식 사항

(1) 참고문헌 오류: Barth Pass가 아닌 Bruce Pass.

(2) 용어 일관성: 분절적(Articulatory)이라는 번역어가 한국어 신학 학술 맥락에서 즉각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 articulatory는 ‘표현적’, ‘분절적’, ‘명시화의’라는 다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어 분절적은 주로 나누어 끊는다는 의미로 읽히기 쉽다. 용어 선택에 대한 부연 설명이 초반에 더 명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3) 분량과 구조: 전체적으로 논증 구조는 체계적이며, 각 장의 역할이 명확하다. 다만 II장의

개념적 토대 부분이 상당히 길고, 동일한 논점이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압축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칭의-연합 논쟁에 대한 메타-방법론적 개입으로서 문제 설정의 정밀성과 세 모델 분석의 균형감각에서 상당한 학적 역량을 보여줍니다. 위의 질문들은 논자의 대안적 제안이 자신의 진단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더 면밀히 다루어져야 할 지점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논문의 기여가 한층 더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탁월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문정수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